

일본 건설업의 협력업체 관리 실태

-건설업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이준헌

최근 건설 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협력업체 관리에 대한 업계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국내에 진출하려는 외국 건설업체들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국내의 우수 전문건설업체들을 계열화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먼저 시장 개방을 맞았던 일본 건설업이 미국의 개방 압력을 우려하지 않았던 것은 일본 특유의 협력업체 조직이 진입 장벽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이는 우리에게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원·하도급 관계는 지배 종속적 성격이 강하였으며 아직까지 신뢰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다. 외국 건설업체들이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경우에 그들과 협력 관계를 맺겠다는 국내 전문건설업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건설업의 협력업체 관리 실태를 고찰하는 것은 시장 개방을 맞이하여 짧은 시간 내에 합리적인 원·하도급 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우리 건설업에 있어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협력업체 관리는 일본의 특수한 사회 문화적 배경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층적 연구와 분석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다이세이건설과 가지마건설의 협력업체 관리 실태 및 관련 실무 자료를 수집하여 간행하였다.

협력업체 관리는 원·하도급 업체간의 특성을 감안해 장기적인 육성 전략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 가지마건설이 3차 3개년 협력업체 육성 전략을 수립하여 10년 간 시행해 오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국내 업체들도 협력업체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우수 협력업체를 집중 육성하여 궁극적으로 원·하도급 업체간에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업무 제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영 체질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